



보도시점 2024.1.8.(월)

배포 2024.1.8.(월) 12:00

【2024년 행복청 정책 돋보기】

2024, 행복도시 활력을 높이는 데 집중!

- 청사, 업무 등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한 주요 기능 배치 -
- 상업, 숙박, 위락, 휴양 등 도시 관광기능 확충 -

올해 행복청(청장 김형렬)은 행복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, 업무, 산업 등 자족기능과 상업, 숙박, 위락, 휴양 등 관광기능을 확충하는 도시기반을 마련한다. 행복도시가 도시완성단계(3단계, 2021~)에 들어선 이후,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여 도시가 한층 성숙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우선 미래수요 대응을 위해 청사, 자족시설 등 주요 도시기능을 추가 배치한다. 청사용지 추가 수요를 파악하고 매체(미디어), 협회·단체, 기업 등 핵심자족시설은 유치단계부터 입지·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한 후 용지를 확보할 예정이다.

또한 그간 유보해왔던 중심상업지구(2-4생활권) 내 숙박·위락시설 등의 단계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여 일부 부족했던 기능을 보완한다. 이는 생활권별 상업업무용지 배치 및 공실 현황 조사결과와 더불어 검토할 계획이다.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기능과 함께 기존 상권을 포함한 도시 전체의 활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아울러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여가·휴양 등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, 전문가, 사업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고운동 대규모 유보지를 자연친화적인 치유 공간으로 계획한다.

김홍락 도시계획국장은 “2024년에는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기능을 배치하고 상업, 숙박, 휴양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활성화하여 행복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여건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도시계획국 도시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홍순민 (044-200-3120)
		담당자	사무관	서강석 (044-200-3130)
			사무관	윤상민 (044-200-3122)

